

이 보도자료는 2019. 5. 24.(금) 18:00 (2019. 5. 25.자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공보담당관 지청장 김춘수

전화 031-880-4301 / 팩스 031-880-4554

보도자료

2019. 5. 24.(금)

자료문의 : 부장검사실(305호)

전화번호 : 031-880-4302

주책임자 : 부장검사 구태연

제 목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패밀리업체’ 적발

-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서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외형을 작출한 13개 업체 9명 적발 (3명 구속)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춘수)은 2019. 4.~5.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순환거래 업체(자칭 ‘패밀리업체’라고 부르는 13개 업체) 사이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 외형을 작출하고 허위로 세금신고를 한 ‘패밀리업체’ 운영자 9명(주범 3명 직구속)의 범행을 밝히고 일괄 기소하였음

[13개 업체 총 9명 적발하여 3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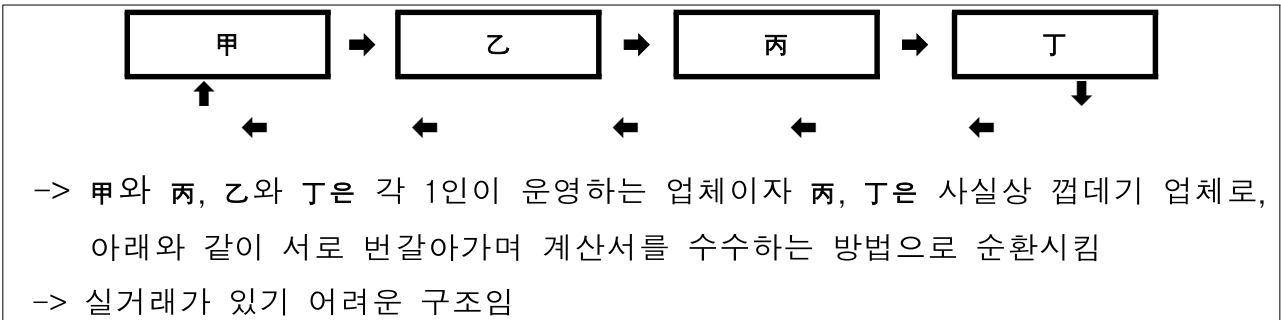
- 대검 업무지원 하에 51개 계좌에 대한 치밀한 계좌추적을 거쳐 13개 가장거래 패밀리업체의 전모를 밝혀 엄단한 사례임

1 사건 개요 및 분석

가. 허위 매출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 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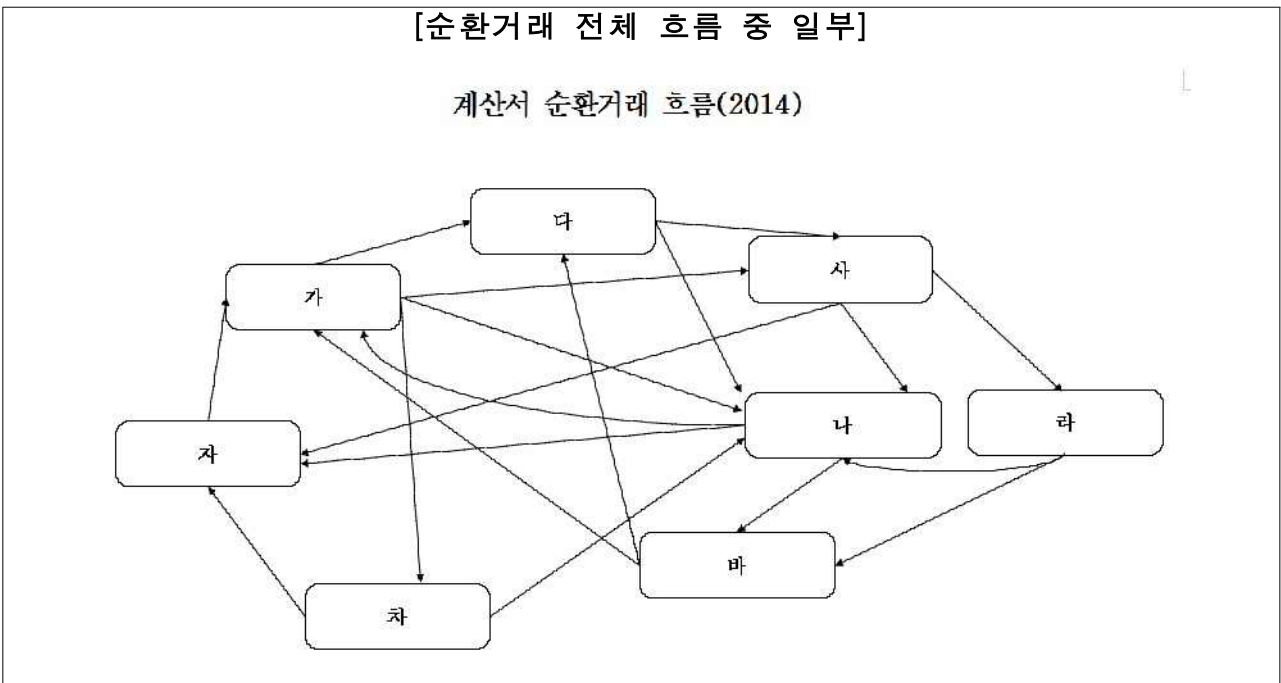
- 주모자 A의 계획·지시에 따라 자칭 ‘패밀리업체’ 13개를 조직하고, ‘13. 4.경 부터 ‘17. 1.경까지 업체들 간 총 1,495회에 걸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주고 받아 거짓의 거래외형을 만들었음

- 수사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업체의 세금신고 자료 등을 확보하여 '패밀리업체' 중 일부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이 근무하는 껍데기 업체임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자 일부로부터 주범 A의 지시에 따른 범행임을 확인함



나. 순환거래 형태의 가장거래 범행

- 업체들은 '순환거래' 형태로 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매출 규모를 맞춤으로써 법인세 등의 부담을 줄이고,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계산서를 순환시켜 이에 맞추어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조세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음



- 계좌추적 결과, 관련 업체들이 허위 거래내역을 작출한 사실(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하거나 거래 대금을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실거래 외형만 작출,

적요란 조작 등), 업체들이 실거래가 가능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함

다. 범행을 이용한 대출 및 체납 후 업체 폐업

- 허위거래에 기초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29억 원을 대출받고(대출 잔액 약 100억 원), 법인세 등 58억 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함
※ 거액의 거래외형을 가장하였기에 상환능력을 신뢰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

2 처분 내용

- 순환거래를 계획하고 범행을 지시한 주모자 A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별건 수용 중인 A를 찾아가 허위진술, 수사방해 등을 논의한 주범 B, D를 직구속하여 구속 기소하고(3명) 그외 업체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였음(6명)
※ 상세 내용은 [별지] 참조

3 수사의 의의

- 사실상 피해자인 대출기관은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범행이고 공범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사건임
 - 특히 이 사건은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업체들이 대규모로 계산서를 순환시키고 거기에 맞추어 거래내역까지 조작하였기에 더욱 적발이 어려운 사건이었음
- 대검업무지원 하에 51개 계좌에 대한 치밀한 계좌추적을 거쳐 13개 가장 거래 패밀리업체의 전모를 밝혀 처벌함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향후에도 조세사범에 대하여 엄정 수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음☑

[별지]

피고인별 처분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순번 | 업체명 | 피고인(운영자) | 횟수 | 허위 계산서 수수액 | 처분 내용 |
|----|--------------------------------|------------|------|---------------|-----------------------|
| 1 | 가 | A (43세) | 517회 | 약 836억 원 | '19. 5. 24. 구속 기소 |
| 2 | 나 | B (43세) | 264회 | 약 461억 원 | '19. 5. 24. 구속 기소 |
| 3 | 다 | C (60세) | 159회 | 약 125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4 | 라 | | 26회 | 약 124억 원 | |
| 5 | 마 | | 30회 | 약 165억 원 | |
| 6 | 바 | D (51세) | 68회 | 약 91억 원 | '19. 5. 24. 구속 기소 |
| 7 | 사 | | 40회 | 약 156억 원 | |
| 8 | 아 | | 7회 | 약 41억 원 | |
| 9 | 자 | E (57세) | 165회 | 약 182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10 | 차 | F (56세) | 143회 | 약 190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11 | 카 | G (55세) | 8회 | 약 43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12 | 타 | H (52세) | 58회 | 약 76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13 | 파 | I (58세) | 10회 | 약 44억 원 | '19. 5. 24. 불구속 기소 |
| 합계 | 총 1,495회, 합계 약 2,540억 원 | | | | |